

KEPCO

2025 July vol.625

별빛처럼 멀지만
분명히 있는 것

기대



4

COVER STORY

당신의 기대가 누군가를 조각하고 있다

6

HOT ISSUE 1

시대적 사명을 함께 완수해 나가다!
'전력망 안정운영 및 적기확충 워크숍'

8

HOT ISSUE 2

현장에서 시작된 안전을 향한 첫걸음
신임 부사장 첫 일정 및 새로운 안전 캐치프레이즈

10

HOT ISSUE 3

새로운 시작을 전하는 첫 페이지
신입사원 입사식 및 OJT 현장 스케치

12

HOT ISSUE 4

지금은 AI 시대!
생성형AI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다

14

HOT ISSUE 5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2025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기원

16

KEPCO ROAD

CEO의 현장 소통경영을 돌아보며

18

SIGHT

중단없는 전력공급을 위한 여름과의 뜨거운 전쟁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 현장 스케치

22

KEPCO STORY 1

인공지능 전력망 시대에
사이버보안과 '소버린 AI'는 생존의 조건

26

KEPCO STORY 2

국내 최대 규모 '암모니아 전소버너 테스트베드' 준공

28

궁금한 이야기 K

미래를 내다본 결단과 32년의 대장정
220V 승압 이야기

30

THANKS FOR PRESENT

카메라 앞 색다른 소통으로 특별한 추억 만들다
구리지사

34

SPACE

소리를 예술로 품은 특별한 공간
오디움

38

CURATION

7월의 계절감을 더한 시원한 예술 처방전

42

TREND

몰입과 기다림의 재발견, 클래식힙

46

KEPCO TALK

48

INSTAGRAM

50

KEPCO QUIZ



신화 속 피그말리온은 상아 조각상에 간절한 기대를 담았고, 조각상은 그 기대에 생명으로 응답했다. 현실 속의 우리는 날마다 나와 타인을 조각하는 피그말리온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조각하고 있는가?

당신의 기대가 누군가를 조각하고 있다

Text 송지영 프럼미 카운슬링 대표



기대는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시선과 기대 속에 살아간다. 부모의 따뜻한 눈빛, 상사의 믿음 어린 말 한마디, 친구의 조용한 격려는 순간의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서서히 바꿔 놓는다. 반면, 반복되는 실망의 표정과 지적, “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라는 말은 내 안에 그런 사람이라는 낙인을 새기고, 결국 그에 맞는 정체성과 행동을 따라가게 만든다. 이처럼 타인의 기대가 실제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주어, 결국 그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고 한다.

이 개념은 1968년,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Robert Rosenthal)과 레노어 제이콥슨(Lenore Jacobson)의 실험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Pygmalion in the Classroom’으로 불리는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아동들의 지능 검사 후 초등학교 교사에게 일부 학생들의 리스트를 주며, “이 아이들은 앞으로 학업 성취도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지능검사 결과와는 전혀 무

관하게 무작위로 선정된 학생들이었다. 그런데 몇 달 뒤, 정말로 그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향상되었다. 교사의 기대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아이들의 자아개념과 동기, 실제 행동이 변해간 결과였다. ‘우수한 학생’이라는 믿음은 교사의 말투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실수에 대해 더 관대하게 반응하게 했으며, 더 많은 기회를 주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작은 차이들이 학생들에게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심어주었고, 그것이 행동과 성과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기대가 아이들의 가능성을 바꾸는 심리적 조각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

조각상도 살아 움직이게 한 ‘기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되었다. 피그말리온은 여인들이 너무나 많은 결점을 지닌 존재라 생각해 독신을 결심한 조각가였다.

그래서 그는 이상적인 여인을 스스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아름다운 상아를 깎아 완벽한 여인상을 조각했다. 그는 조각상에 옷을 입히고 보석을 채우며, 마치 살아 있는 존재처럼 사랑을 쏟았다. 그리고 신전에서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비너스 여신은 그의 기도에 응답했고, 조각상은 실제 여인이 되어 눈을 떴다. 피그말리온은 그녀에게 ‘갈라테아(Galatea)’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사랑을 이루게 됐다. 이 신화는 단순한 낭만적 이야기가 아니다. 간절한 기대가 생명을 흔들고, 가능성을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깊은 은유다. 고대의 신화는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기대가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굴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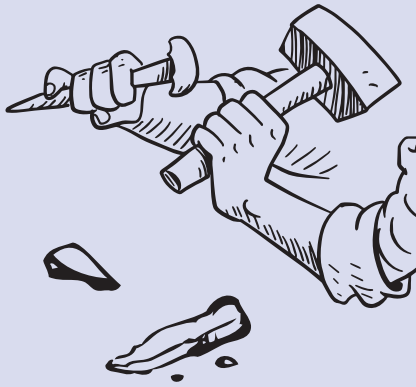
그러나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기대만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부정적 심리 기제를 상대에게 투사하며 상대를 제한할 수도 있다.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에 의해 제시된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는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 두려움, 결핍 같은 내면의 요소를 타인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사하고, 그 투사된 이미지에 상대가 실제로 영향을 받아 행동하거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내면의 불안이나 결핍을 마치 상대가 가진 것처럼 던져놓고, 그 상대가 점점 그렇게 반응하게끔 만든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상대 안에 나의 부정적 믿음을 심는 것’이며, 상대는 그 심어진 이미지에 따라 자신을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넌 참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야”라고 말한다면, 어렸을 적부터 이런 말을 들어온 아이는 실제로 자신이 예민하고 까다롭

다고 생각하게 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자녀가 예민한 기질이 아니라 부모가 예민한 사람이라면, 자녀는 부모의 불안 심리를 투사받아 왜곡되게 자아를 형성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상대를 향한 말과 기대가 ‘긍정적 자원’이 아닌 ‘부정적 제한’의 도구로 작동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주변의 갈라테아들을 깨어나게 만들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피그말리온이다

가장 강력한 피그말리온은 사실 바깥에 있지 않다. 내가 나에게 어떤 기대를 품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는 언제나 부족해”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 가능성을 스스로 지우고, “나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라고 여기는 사람은 기회를 알아보고 도전할 힘을 가진다. 기대는 타인이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상아 조각에 생명을 불어넣었듯,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조각하며 살아간다. 중요한 건, 그 조각이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에서 빛어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믿음으로 다듬어진 것인지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피그말리온이다. 격려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운 적도 있고, 실망의 눈빛으로 마음을 닫게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품는 기대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조용히 작동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은 곧 내일의 나를 조각할 도구가 된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품고 있는 기대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조용히 빚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어떻게 조각하고 있는가?



Pygmalion Effect

HOT
ISSUE
01

시대적 사명을 함께 완수해 나가다! '전력망 안정운영 및 적기확충 워크숍'

Text 양은선 Photo 김보라 자료제공 송변전운영처



“여러분을 만나서 든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맞닥뜨린 중차대한 현안과 같은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7일 한전 본사 비전홀에서 열린 '전력망 안정운영 및 적기확충 워크숍'은 송변전 운영과 건설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본부장을 비롯한 전력계통본부 차·실·단장과 함께 건설본부장, 전력관리처장, 전력·건설지 사장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석자들로 행사장이 북볏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 보며 인사가 바빠 오갔다. 빈자리 없이 가득 찬 홀에서 김동철 사장의 입장과 함께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개회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한 한전의 노력이 한눈에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시청 후에는 영상에 나온 것처럼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한 서로를 위한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2024년 무재해·무고장 우수사업

소 및 무고장 마일리지 달성 사업소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서울본부 등 4개 사업소가 최우수, 강원본부 등 3개 사업소가 우수 포상을 받았으며, 경북 영주전력지사 등 5개 사업소가 무고장 마일리지 달성 사업소로 선정되었다. 김동철 사장이 직접 사업소 대표에게 상을 수여하며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보냈다. 많은 이들이 축하가 담긴 박수를 단상에 보내며 기쁨을 함께했다. 마지막으로 수여자 모두가 상을 가슴에 안은 채 단체 기념 촬영을 하며 뜻깊은 순간을 렌즈에 남겼다. 이어서 선서자 대표 2인이 무고장 및 적기 건설을 다짐했고, 우렁찬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는 선서에 참석자 모두가 오른손을 들어 함께 결의를 다졌다.

김동철 사장은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수많은 국가적 중요 행사와 재해·재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밤낮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전력산업 현장을 지켜주었다. 우리 회사가 세계 최고 품질의 전기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께서 최일선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정전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복구할 수 있게 평소에 준비를 철저히 할 것”,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길 것”, “송변전 건설과 운영사업소가 서로 협력하여 전력망 적기 건설을 반드시 완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행사가 본사와 사업소, 그리고 송변전 운영과 건설 조직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정전에 방과 전력망 확충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워크숍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오후에 열린 2부 행사에서는 송변전 운영·건설 현안 토론회 워크숍이 열렸다. 서철수 전력계통본부장은 어려운 업무환경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 말을 전하고, 송변전 운영·건설 현안의 심도 있는 토의와 함께, 현장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토론에 앞서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해 힘을 모을 여러 차·실·단의 발표가 이어졌다. 올 초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점검 및 복구 경과, 하계 재해·재난 대비 안정적 설비운영 방안, 변전설비 운영 중점 관리사항 및 정책 방향 등을 비롯해 345kV 국가기간망 사업 현황과 적기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대폭 강화 방안,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과 우리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집의응답, 토론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사업소에서 건설 업무를 하며 겪는 고충들도 가감 없이 털어놓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서철수 본부장도 마지막 강평에서 “많은 질책을 기대했다”라며 “우리의 노력을 돌아보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회사의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함께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모인 이번 워크숍은 전력망 안정운영과 적기확충을 위한 우리의 지난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본사와 사업소, 송변전 운영과 건설이 하나 되어 국가 전력의 미래를 더욱 탄탄히 만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HOT
ISSUE
02

현장에서 시작된 안전을 향한 첫걸음

신임 부사장 첫 일정 및 새로운 안전 캐치프레이즈

Text 양은선 Photo 김보라 자료제공 안전처

지난 5월 28일, 정치교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 취임했다.

정치교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초대 차세대배전지능화실장으로서 ADMS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고 초기 플랫폼 구축을 주도하였다. 이후 배전건설실장, 배전계획실장, 배전계획처장을 역임하며 새로운 지중화 모델을 도입하고, 배전 감리제도 개선 및 협력회사 계약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이어 경기북부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각종 재해·재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였다.

신임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의 취임 첫걸음은 현장에서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올 초에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 현장이었다. 경북분부와 대전세종충남분부를 잇는 이번 일정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부사장의 '안전 최우선' 메시지를 현장에 전하고 또 실천으로 옮기는 자리였다.



산불 복구 현장, 안전의 재건을 다짐하다

올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전주 1,663기, 전선 2,589경 간 등의 설비 피해를 입었고 총 27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경북 지역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경북 안동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과 산업시설 피해 복구 공사 현장을 찾은 부사장은 “피해현장을 오늘 직접 둘러보니 그 규모에 놀랐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 크게 다가왔다”라며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온열질환 예방 물품 등을 선물하며 더운 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였다. 아울러 “한전은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며 자긍심과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복구 공사 중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안전관리에 대해 재차 당부하였다. 이어서 대전세종충남분부를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과거 발생한 재해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안전장구 착용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여름철 현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주길 바란다”라며 작은 실천이 생명을 지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현장점검을 마친 부사장은 “국내 최대 공기업의 안전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도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한전의 안전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안전 최우선 경영은 법과 제도, 계획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부사장의 취임 직후 첫 행보는 현장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행되어야만 함을 잘 나타낸다. 우리의 새로운 안전 캐치프레이즈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타협없는 안전관리!
위험하면 작업중지!

모두의 실천으로 완성될 새로운 안전 캐치프레이즈

지난 5월 전사 공모를 통해 새로운 2025년 안전 캐치프레이즈가 선정되었다. 총 2,855건이 접수된 이번 공모는 사내외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안전은 속도, 비용 등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을 잊지 않고, 작업 중 위험을 발견하면 작업을 중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캐치프레이즈이다. 이는 작업자의 행동을 직접 유도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한전과 협력회사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추었다.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는 포스터, 명함, 파일홀더, 플래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전사에 배포될 예정이다. 매 순간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행동 지침이자 서로를 위한 약속이 될 것이다.




HOT
ISSUE
03

새로운 시작을 전하는 첫 페이지 신입사원 입사식 및 OJT 현장 스케치

Text 양은선 Photo 김도형 자료제공 인사처·인재개발원

“한전이라는 커다란 무대에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담대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기대와 설렘을 모두 담고 있는 시작. 그 시작의 떨림이 가득한 곳이 있으니, 2025년 상반기 한전 신입사원 입사식 현장이다. 지난 6월 2일, 6월 16일 양일에 나눠 진행된 324명 신입사원의 입사식은 한전인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호탄을 울리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인재개발원 대강당의 붉은 의자 위로 검은색 재킷을 입은 신입사원들이 모여있는데,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은 모습에서 긴장이 역력했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진행자 김형진 차장이 꺼내는 회사생활 에피소드를 들으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신입사원들의 입사를 축하하기 위해 안중은 경영관리부사장, 최철호 전력노조위원장, 이철휴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해

노조 인사, 채용과 교육을 담당하는 인사처 및 인재개발원 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입사원 대표 2인이 패기 있는 목소리로 선서하고, 임명장과 입사 축하 선물을 받았다. 부사장의 대독으로 신입사원들에게 전달된 CEO 환영사에서는 “오랜 준비 끝에 한국전력공사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신입사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정신에 큰 박수를 보낸다”라며 한전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했다. 이어 앞으로의 회사생활에서 열정, 소통, 창의력, 청렴,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설렘과 초심을 오랫동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회사는 여러분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을 위한 격려를 잊지 않았다. 최철호 전력노조위원장은 축사에서 “여러분들은 입사와 함

께 두 가지 신분을 갖는다. 하나는 한전 직원, 또 하나는 전국전력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라며 입사와 함께 조합원이 된 것을 환영했다. “수레바퀴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겠다. 우리 회사에서 미래와 희망을 찾아가길 바란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부사장을 비롯한 12명의 인사가 신입사원들의 웃기에 한전 휘장을 직접 달아주었다. 회사의 일원이 된다는 상징적인 첫 순간이다.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는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모두 본관 앞 잔디밭에 모여 기념사진으로 오늘을 남겼다.

입사식으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후, 신입사원들이 나주 본사에 모였다.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바빠 내려와 한빛홀 강당에 모였는데, 맞춰 입은 반팔 티셔츠가 신입사원의 풋풋함을 드러냈다. 윤여일 인사처장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인 한전에 입사한 것을 축하하고 또 감사드린다”라며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이어 회사생활 30년 선배로서 노하우를 전하면서 “먼저 인사하고, 업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계발과 성장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후 강연은 신입사원들에게 한전이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인사처 탁경민 차장이 새롭게 만들어진 한전의 인재상에 대해, 해상풍력사업처 조은미 차장이 「해상풍력 보급 촉진·산업육성 특별법」과 한전의 역할에 대해, 송변전건설단 채수민 차장이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이에 따른 한전의 노력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서 본사 사옥 견학이 진행되었다. 한전 홍보관인 GEP 파빌리온에서 전기와 한전의 역사에 대해 한눈에 살펴보고,



사내방송 스튜디오에서는 영상 콘텐츠 제작 현장을 체험했다. 서로의 모습을 모니터로 확인하며 웃음꽃이 피기도 했다. 회의와 휴식의 공간이 되는 31층 하늘빛라운지에서는 나주 혁신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보았다. 재난종합상황실에서는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배웠다. 리모컨을 조작하자 모니터 화면이 투명해지면서 상황실의 모습이 드러났고, 신입사원들의 순수한 감탄이 터져 나왔다. 본사 투어의 마지막은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되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 속에는, 한전인으로 하나가 된 순간이 담겨있었다.

뜨거운 여름의 초입에 만난 신입사원 여러분, 다시 한번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어쩌면 앞으로 낮설고 힘든 날들도 찾아오겠지만, 함께한 오늘의 기억과 동료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밝히는, 한전의 미래를 여러분이 만들어갈 차례이다.

HOT
ISSUE
04

지금은 AI 시대!
생성형AI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다

Text 양은선 Photo 김보라 자료제공 ICT운영처

일상에서나, 업무를 할 때나 AI 활용을 빼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낯설기도 하고, 막상 활용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ICT운영처에서는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였다. 똑똑하게 활용하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AI, 다 함께 배워보고 활용해 보자.



강사 : 최재용 디지털융합교육원장



지난 5월 28일 김동철 한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생성형AI 리터러시 교육에 참석하였다. 최재용 디지털융합교육원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의 개념부터 실전 활용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챗GPT, Gemini 등 AI 도구를 활용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직접 실습했으며, 프롬프트(명령어) 작성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도출하는 방법도 익혔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유튜브 영상을 요약하고 이미지나 동영상을 제작하는 법도 배워 AI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도 크게 높아졌다. 앞으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나 경영환경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AI가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진 교육과 더불어 관리자, 실무자 모두 참여하는 생성형AI 리터러시 교육도 4차수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 120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웠다. 보고서 작성, 기획안 구성, 회의록 정리 등 자주 접하는 작업들을 AI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실습하였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AI를 직접 체험하고 활용하는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바로 쓸 수 있는 실무형 강의였다”라고 호평했다.

특히 AI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 아닌 일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윤준철 ICT운영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AI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생성형 AI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라며 “이번 교육은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AI는 의사결정, 데이터 분석, 자료 작성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교육을 발판 삼아 누구나 AI를 자신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HOT
ISSUE
05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2025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기원

2005년부터 20년간 한전이 전국 곳곳에서 문화 나눔의 일환으로 개최한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가 6월 18일(수)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렸다. 그동안 한전은 무료 공연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국민과 소통해 왔다.

Text 이범석 Photo 박창현



이번 경주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는 10월 말부터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더욱 풍성하게 마련됐다. 하이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대중들에게 익숙한 뮤지컬, 영화 OST,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명곡들로 구성해 경주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갔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제1호 뮤지컬 음악감독인 박칼린 감독을 지휘자로 섭외했고, 각종 TV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이름을 알린 뮤지션들을 초청했다. 가수 NOHD의 사회로, 50인조로 구성된 하이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고 뮤지컬 배우 윤지인·박유검, 가수 이희주, 색소폰리스트 김소폰이 무대에 올랐다. <위키드>, <노틀담의 꿈>, <겨울왕국>, <반지의 제왕> 등 유명 뮤지컬 넘버와 영화 OST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곡을 풍성하게 편곡해 공연했다.

이번 공연은 리허설부터 인상적이었다. 완벽한 공연을 만들기 위해 공연팀은 연주자 하나하나 소리를 맞추며 음향을 조율했고, 지휘자로 초청된 박칼린 감독은 연주자들의 사소한 실수까지 놓치지 않고 특유의 카리스마로 화음을 맞춰나갔다. 박칼린 감독과 총연출은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며 뜨거운 열정을 부딪치기도 했다. 출

연진도 마찬가지였다. 리허설임에도 불구하고 윤지인 배우는 실제 공연과 같이 자기 차례마다 매번 실제로 의상을 갈아입으며 리허설을 진행했고, 출연진 모두 최선의 실력을 보여주는 등 프로의 자세를 보여줬다.

이번 공연은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1주일도 안 되어 입장권이 전체 매진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역주민과 다문화 가정 등 문화소외계층 100여 명을 초청하고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과 경주시의원 등 지역 인사들도 참석해 총 7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연장에서는 콘서트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와 램프 만들기 등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공연장을 찾는 경주 시민에게 재미를 더했다.

한전은 지역주민과의 문화 소통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강원도 정선군,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남도 장성군에서도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HOT ISSUE

01

HOT ISSUE

02

HOT ISSUE

03

HOT ISSUE

04

HOT ISSUE

05

2024

CEO의 현장 소통경영을 돌아보며

김동철 사장이 '24년 3월부터 '25년 6월까지 전국 사업장 방문을 위해 이동한 경로는 총 8,768km에 달하는 장거리이다. 전 직원이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회사 현안을 공유하고 진솔하게 소통하며 먼 길을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 긴 여정을 사진과 함께 살펴보자.



('24. 3. 5.) 광주전남본부



('24. 3. 5.) 담양지사



('24. 3. 7.) 남서울 경기북부·경기본부 통합



('24. 3. 14.) 서울본부



('24. 4. 1.) 강릉지사



('24. 4. 1.) 울진지사



('24. 4. 2.) 경북본부



('24. 4. 2.) 대구본부



('24. 4. 22.) 단양지사



('24. 5. 16.) 대전세종충남본부

2025



('24. 5. 20.) 부산울산본부



('24. 5. 21.) 경남본부



('24. 5. 23.) 전력연구원



('24. 5. 24.) 제주본부



('25. 6. 11.) 경기북부본부



('25. 6. 11.) 연천지사



('25. 6. 13.) 강화지사



('25. 6. 13.) 인천본부



('25. 6. 18.) 남원지사



('25. 6. 18.) 전북본부



('25. 6. 19.) 구례지사



('25. 6. 19.) 고흥지사

중단없는 전력공급을 위한 여름과의 뜨거운 전쟁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 현장 스케치



기후 위기 속 올여름은 역대급 더위를 예고하고 있다. 재해·재난도 그 규모를 가능할 수 없는 예측불허의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전력망의 심장부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중단 없이 에너지를 펌프질하며 여름 더위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전의 전력공급 현장을 향했다.

Text 장은경 Photo 황지현, 이범석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광주전남본부 배전센터와 계통운영센터를 찾았다. 아직 여름 피크 전인데도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에게선 날 선 긴장이 묻어난다.

여름은 한전인들이 한층 치열해지는 계절이다. 폭염과 폭우, 태풍 등 뜨겁고 사나운 기후는 한전이 운영하는 전력설비에 영향을 미치고, 전력공급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기상청은 특히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등 위험 기상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설비 점검을 위해 폭염 속 현장을 누비는 한전인들

이에 따라 한전은 여름에 대비해 송배전설비 전반에 대해 설비 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우며 만반의 체비를 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에 전력수요가 늘어나면 배전설비에 과부하가 걸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한전은 배전선로 부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과부하가 발생하면 표준조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부하를 전환해 전력공급의 중단을 예방한다. 또 변압기 부하율을 수시로 체크해 과부하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설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한다.

태풍, 집중호우, 낙뢰 등 기상재해에 대한 대비도 빼놓을 수 없다. 침수가 우려되는 배전설비를 점검해 보강하고, 배수장 등 치수설비 공급선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장마나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광주전남본부 배전운영부 고환석 차장은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저희 한전인들은 특히 긴장감을 가지고 배전설비를 점검하고 여러 가지 비상상황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땀을 닦는다.

아울러 사전 특별 순시, 모의훈련, 수목 전지 강화 등을 추진함은 물론이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기상악화나 전력설비 동시다발 고장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하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상황파악을 하고 지자체 등 대내외 공조를 통해 신속복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설비인 아파트 수전설비도 고객센터 차원에서 점검을 지원해 정전을 예방하고 정전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① 본부 배전센터에서는 과부하 배전선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부하를 전환해 전력공급의 중단을 예방한다.

②, ③ 여름철 현장을 돌며 과부하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전력설비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전인들.



선제적 설비 보강과 재해 신속 대응체계 수립으로
완벽한 여름철 전력공급 대비한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사나워지는 기상환경과 전력수요 급증이라는 변수에 바짝 긴장하기는 송변전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송변전 분야는 과거 재해·재난으로 인한 설비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취약 설비 집중 점검과 보강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 집중 호우를 대비하여 급경사지와 산불 피해지역에 위치한 철탑을 사전 점검하였고, 방수포도 사전에 설치해 두었다. 변전소의 경우도 법면과 옹벽, 차수·배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배수로 정비와 펌프 보수 작업도 모두 마쳤다. 폭염과 화재를 대비하여서는 화재에 취약한 변압기와 케이블의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열화상 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변전소 중 유입기기가 설치된 개소는 소방서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완료하여 대응력을 높였다. 아울러 태풍을 대비해 해안가 인근 송전선로에는 전선횡진 방지장치를 설치하였고, 강풍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가 설치된 변전소는 시공실태를 점검, 사전보강을 완료하였다. 더불어, 전력계통본부장과 본사 차·실장들도 담당권역을 지정하여 특별점검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만난 광주전남본부 변전운영부 서근영 차장은 “비상 대응을 위해 협력사, 유관기관과 상호연락체계도 재정비 하였으며, 비상복구자재인 이동용변압기와 개폐장치도 사전에 점검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전했다. 기상재해 예보시에는 본사와 사업소, 협력사가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재해 발생 시에는 협력사와 협업을 통해 신속히 점검하고 복구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❶, ❷ 무더운 날씨에도 고배율망원경, 점검용 드론 등으로 송전선로 설비를 점검하는 현장.

❸ 변전소도 초음파 진단장비, 부분방전 진단 장비 등을 동원해 변전설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❹, ❺ 아파트 수전설비는 고객설비이지만 고객센터 차원에서 점검과 정전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여름, 함께 이겨내야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폭염일수와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극한호우, 열대저기압 폭우 등 과거엔 없었던 기상이변도 설비 운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인공지능 관련 장비 확대 등으로 국지적인 전력망 포화과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는 올여름, 일선 현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고장이 예측되는 설비나 이상징후 발견 시, 해당 부서 및 협력사와 신속히 대응해주시고 고장 발생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복구작업에 임해 주시고 고객에 대한 안내 또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전운영처 양길모 차장은 일선 현장의 한전인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전한다. 전력 확보가 생존과 국가 번영에 필수적인 과제인 시대, 전력소비가 폭증하는 여름에 대비하느라 한전 배전운영처와 송변전운영처, 그리고 일선 사업소의 전력공급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공지능 전력망 시대에 사이버보안과 ‘소버린 AI’는 생존의 조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전력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스마트미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대표되는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은 더 이상 미래의 화두가 아니라 현재 산업의 표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 혁신의 이면에는 사이버 위협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전력망이 물리적으로 고립된 폐쇄형 제어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수많은 디지털 기기가 IT 네트워크로 연결된 거대한 디지털 인프라로 진화했다.

Text 이경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Sovereign AI

사이버보안, 전력산업의 핵심 경쟁력

에너지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전력기업이 산업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혁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전이 보유한 방대한 전력 데이터는 그 자체로 전략 자산이며, 생성형 AI와 같은 첨단 기술과 결합할 때 더욱 큰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은 전력수요 예측, 설비 이상 징후 탐지, 사이버 위협 패턴 분석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실제로 세계 상위 10대 전력기업 중 80%가 AI 기반 수요예측과 설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시범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생성형 AI는 기존의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로그 파일, 이메일, 네트워크 트래픽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동시에 분석해 공격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는 데 매우 탁월하다. 최근 글로벌 해킹 단체들은 AI와 자동화 기술을 결합해 공격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방어 체계 역시 AI 기반의 자동화와 실시간 대응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소버린 AI(Sovereign AI)’의 전략적 부상

이러한 AI 기술 혁신의 중심에서 ‘소버린 AI’라는 개념이 전력망과 국가 인프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소버린 AI란 말 그대로 ‘주권이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며, 특정 국가나 조직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인 인프라, 데이터, 인력, 기술 네트워크를 사용해 인공지능을 개발·운영·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 개념의 핵심은 데이터 주권 확보에 있다. 자국의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AI 개발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유출 위험을 줄이고,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AI 모델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기술 자립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정보 보호 차원에서 매우 유리하다.

아울러 소버린 AI는 자국 내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및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국가마다 고유한 언어, 문화, 가치관, 법적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AI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국민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 외부 시스템에 의존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 소버린 AI는 독립적인 인공지능 인프라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요약하자면,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국가 안보, 문화적 독립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과 필요에 맞춰 AI를 전략적으로 통제·활용하려는 움직임의 핵심이다. 전력망과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에 있어 소버린 AI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정책 변화와 한전의 구조적 전환

2025년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초대형 데이터센터, 생성형 AI, 전기차 인프라 등 첨단산업의 비약적 성장에 따라, 전력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은 연간 약 17TWh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AI 학습 서버와 GPU 기반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는 일반 오피스 빌딩 대비 10배 이상, 일반 데이터센터에 비해서도 수 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IEA 2024). 전기차 대중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정책적 변화들은 전력망의 복잡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소버린 AI’라는 개념이 전력망과 국가 인프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소버린 AI란 말 그대로 ‘주권이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며, 특정 국가나 조직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인 인프라, 데이터, 인력, 기술 네트워크를 사용해 인공지능을 개발·운영·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제 ‘산업의 쌀’로 불리는 전력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국가 산업 전략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아무리 디지털산업을 육성하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탈탄소화 정책 등은 전력망의 예측 불가능성과 운영의 복잡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자를 넘어,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AI 기반 수요예측, 실시간 분산전원 제어,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융합 역량 강화가 이를 촉진할 것이다.

전력망 사이버보안, 왜 중요한가?

전력망은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 그리고 안보를 지탱하는 절대적 기반이다. 전기가 중단되면 병원, 공항, 지하철, 금융기관, 군사시스템까지 즉각적으로 마비될 수 있다. 사이버공격을 통한 전력망 마비는 물리적 파괴 없이 국가 기반 전체를 흔드는 ‘비가시적 재난’이다. 2015년 12월,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그 위험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 공격자들은 피싱 이메일을 이용해 내부자의 PC를 감염시켰고, 이후 SCADA 시스템에 침투해 송전망 스위치를 원격으로 조작했다. 그 결과, 6시간 동안 23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으며, 콜센터와 복구 시스템까지 마비되어 피해가 극대화됐다. 해커들은 킬디스크(KillDisk)라는 파괴형 악성코드까지 사용하여 복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사이버 공격이 실제 물리적 피해를 초래한 최초의 대규모 사례로 기록된다. 또 다른 실제 사례인 2021년 미국 Colonial Pipeline 랜섬웨어 사태는, 에너지 인프라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국가적 위기로 번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미국 동부 지역의 1만 곳 이상 주유소가 일시적으로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휘발유 가격이 단기간에 6% 이상 급등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 사건은 IT망 침해만으로도 OT(운영기술) 시스템이 직접 공격당하지 않았음에도 전체 운영이 중단되는 구조적 연계를 드러냈으며, 이는 우리 전력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경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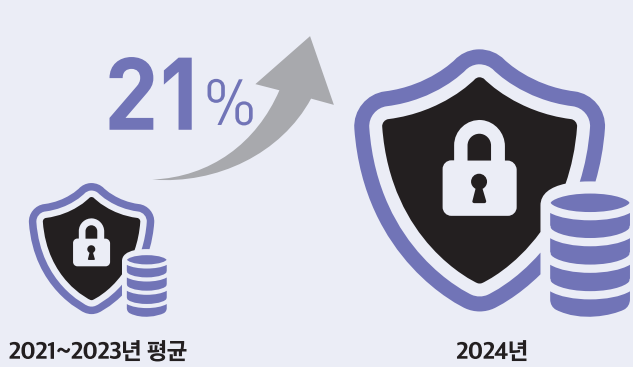
국내 전력산업의 보안 현실과 위협 요인

국내 전력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전이 운영하는 대규모 변전소, 송배전 제어시스템, 스마트미터 등 수많은 전력설비는 모두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국내 전력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어시스템은 상용 인터넷 등 외부 네트워크와 분리되어 있어 사이버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식되어 왔으나, 제어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및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해 점차 범용 운영체제 및 개방형 프로토콜 사용 환경으로 변화되어 비인가자에 의한 시스템 무단 접근 등을 통해 악성코드에 감염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와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은 외부 네트워크 노출 지점을 증가시키고, 공급망 보안 문제 역시 심각하다. 실제로 최근 미국 내 판매 중인 중국산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에서 악성 통신장치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제품은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내부자 위협과 보안 인력 부족도 문제이다. 2023년 기준 한전 및 계열사 내 사이버보안 전담 인력은 전체 IT 인력의 4%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는 글로벌 평균(6~8%)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취약점들이 결합될 경우,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망이 한 번 멈추면, 완전 복구까지 평균 6~12시간이 소요된다는 통계도 있다.

한전의 대응 전략과 미래 과제

한전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력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24시간 365일 실시간 사이버위협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알려지지 않은 신종 및 변종 사이버 공격행위를 검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연계, IoT기기 활용 확대 등 전력계통 확장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고자 인터넷 등 외부망과의 연계구간 악성코드 탐지,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IoT기기 필수 보안기능을 반영한 보안규격 제정, 운영 등 기술적, 관리적 보안 체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최정예 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전형 사이버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도 병

한전 연간 사이버보안 예산 증가율(이전 3개년 평균 대비)



행 중이다. 2024년 기준 한전의 연간 사이버보안 예산은 이전 3개년 평균 대비 21% 증가했으며, 정기 모의해킹 및 대응훈련 횟수도 두 배 이상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보안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투자와 경영진의 이해, 조직 문화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외 장비에 대한 독립적 평가체계 마련과 국산화 시도, 공급망 전반의 보안 강화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모든 임직원이 보안의식을 내면화하고, ‘나 하나쯤이야’라는 방심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한다. 동시에, 한전은 소버린 AI 전략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력망 운영에 있어 AI 관련 인프라, 데이터, 기술 네트워크를 자국 내에서 구축·관리함으로써 외부 해킹과 데이터 유출, 글로벌 기술 종속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이나 편의성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미래를 위한 제안: ‘설계 단계부터 보안’과 소버린 AI의 결합

이제 전력망 보안은 ‘운영 후 대응’에서 ‘설계 단계부터 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사용자, 기기, 응용프로그램 모듈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모델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까지 통합 관리하는 보안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개

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적 사이버안보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며, AI 기반 위협 예측 플랫폼을 통해 공격 패턴을 미리 감지하는 지능형 방어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소버린 AI 전략을 결합하면, 한전과 국가 전력망의 보안 체계는 외부 위협에 훨씬 더 강인해질 수 있다. 자국의 데이터 주권과 기술 독립성을 지키는 ‘주권 AI’는 전력망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디지털 생태계 안 전망을 구축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맺음말

지능형 전력망은 우리 사회에 편리함과 혁신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상상 이상의 사이버 위협을 내포한다. 사이버보안과 소버린 AI는 이제 기술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경영진, 정책당국, 기술자,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이다. 사이버공격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린다. 한전과 전력산업 전체가 모든 고리를 견고히 다지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방패와 주권 있는 인공지능을 갖춰야 할 때이다. “사이버보안 없는 스마트그리드는 단지 더 취약한 그리드일 뿐이다. 그리고 소버린 AI 없는 핵심 인프라는, 언제라도 외부에 흔들릴 수 있는 불안한 미래일 뿐이다.”

전력망 운영에 있어 AI 관련 인프라, 데이터, 기술 네트워크를 자국 내에서 구축·관리함으로써 외부 해킹과 데이터 유출, 글로벌 기술 종속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이나 편의성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Text 김동원 전력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소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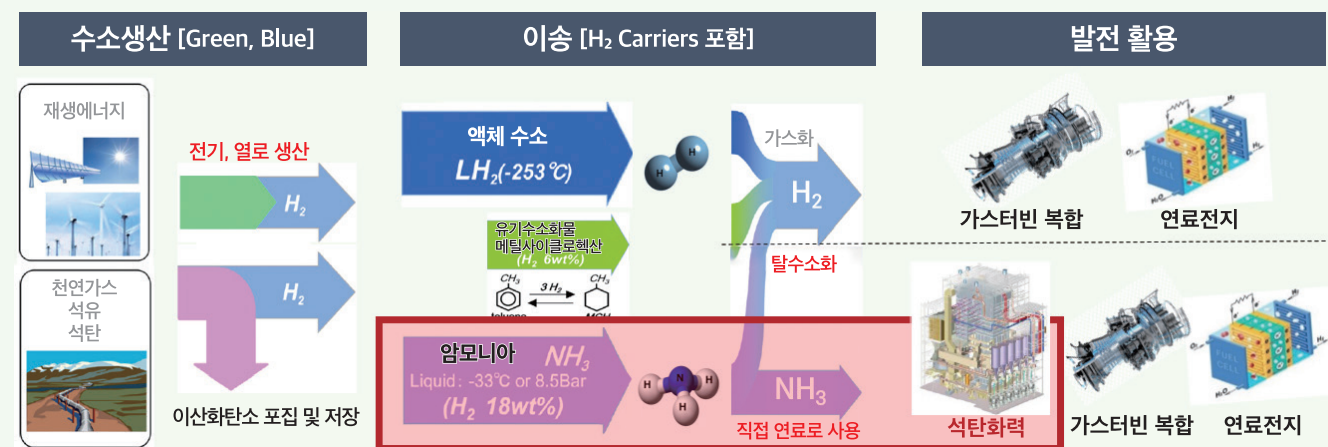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친환경 발전기술의 핵심 인프라 구축

한전은 5월 20일, 대전 전력연구원 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암모니아 전소버너 테스트베드'를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무탄소 연료 기반의 차세대 발전기술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번 테스트베드 준공은 암모니아 100% 연소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연구의 전초기지로, 향후 대형 발전소 적용을 위한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암모니아(NH_3)는 연소 시 CO_2 를 배출하지 않는 대표적인 무탄소 연료로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이끌 대체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연소 특성상 점화가 어렵고 반응 속도가 느리며, 고온에서 질소산화물(NOx)이 다량 발생하는 등의 기술적 과제가 따뒀다. 한전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암모니아 전소 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실험과 기술 고도화에 착수하였다. 참고로 석탄-암모니아 혼소버너는 석탄 버너를 개조하여 석탄과 암모니아를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탄소 저감의 초기 단계 기술이다. 반면 암모니아 전소버너는 암모니아 100% 연료로만 작동하는 전용 연소기로 CO_2 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의 핵심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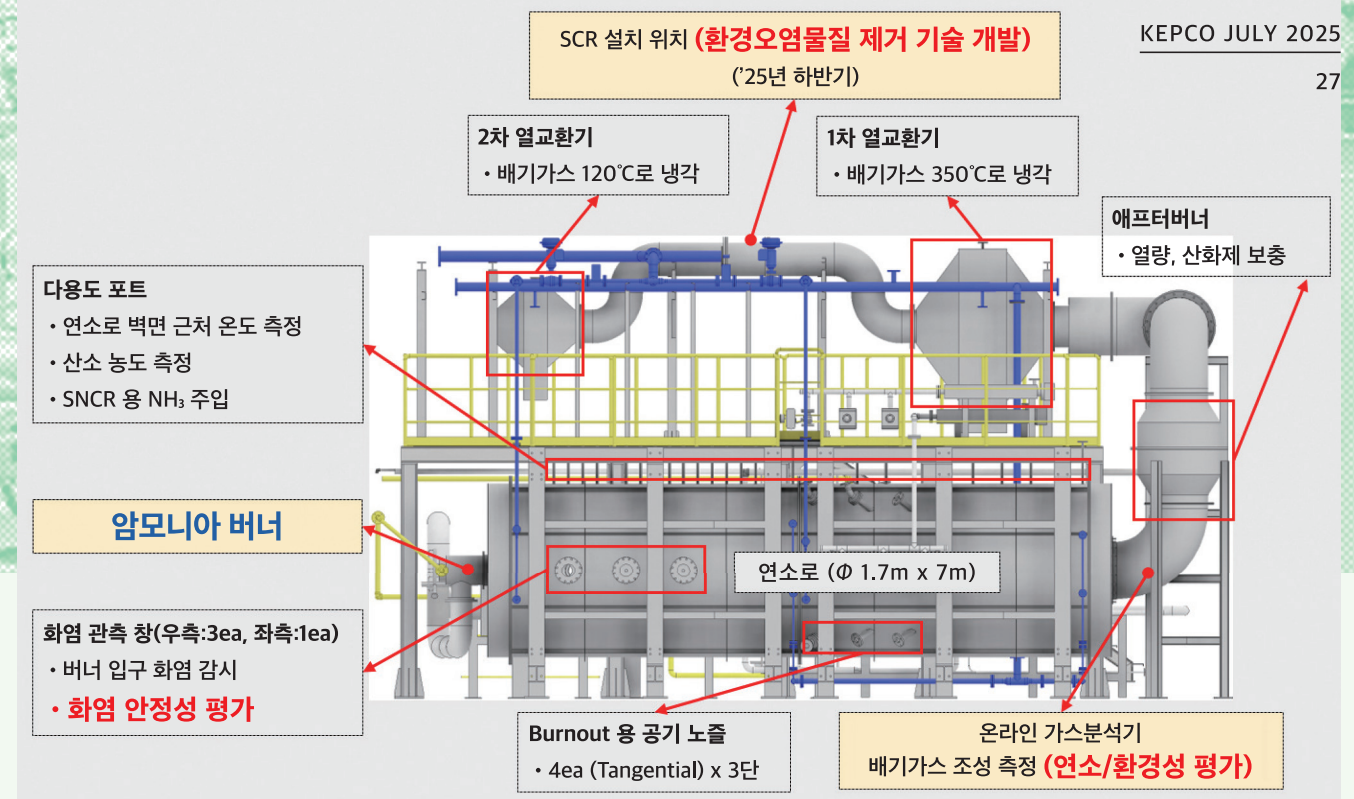
① 무탄소 발전을 위한 암모니아 직접 연료 활용 석탄화력 적용 개념도



고도화된 설비 구성과 기술적 차별성

이번 테스트베드는 1MWth급 규모의 연소로(직경 1.7m, 길이 7m)를 중심으로, 액체 암모니아 저장 및 기화공급 설비, 연소 가스 분석 및 후처리 시스템 등을 통합적으로 갖추고 있다. 버너는 1차 및 2차로 분리된 공기와 연료 공급이 가능하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연소 안정성 평가 및 환경 영향 분석을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암모니아 저장설비는 총 740kg 규모로, 히팅 자켓(성능 저하 감소 장치) 및 잔량 계측용 로드셀(센서)을 갖춘 탱크와 함께 최대 400kg/h까지 공급 가능한 기화기 2기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질소 및 공기 기반의 이중 퍼지 설비(유해가스 방지 장치), 전용 UPS, 누출 대응 음압 시스템 및 암모니아 펄가스 처리 장치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연소로 내부에는 화염 관측창, 다용도 포트, 온라인 가스 분석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연소 특성, 배출가스 조성, 온도 분포 등을 실시간으로 정밀 분석할 수 있다. 향후 SCR(선택적 촉매 환원) 등 후처리 기술과 연계한 탈질 성능 향상 연구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② 암모니아 전소버너 테스트베드 개요

실증시험 성과와 기술개발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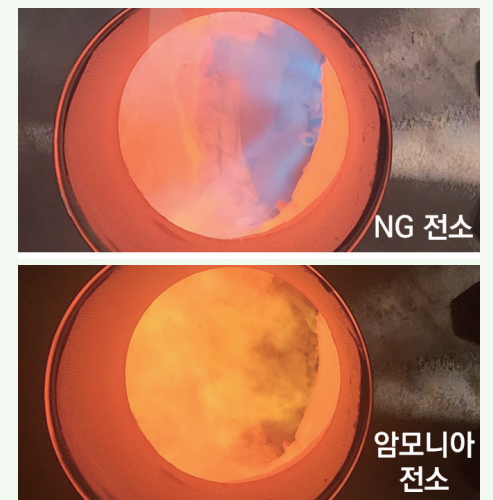
2024년 하반기부터는 비에이치아이(BHI) 및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HPS)에서 개발한 시작품을 활용해 본격적인 연소시험이 진행되었다. 암모니아의 낮은 연소성과 높은 점화온도로 인한 화염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고농도 질소산화물 발생 등 다양한 기술적 난제를 마주하였으나, 한전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정밀한 실험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다. 버너 구조 개선과 운전조건 최적화를 통해 암모니아 100% 전소에 성공하였으며, 중심부 노즐과 Swirler(유체 회전 장치) 설계를 개선하고 Over Fire Air(보조 공기) 주입 조건을 조정한 결과, 화염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를 120ppm 이하로 억제하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이는 암모니아 연소기술 상용화를 가로막던 핵심 과제를 극복한 실질적 성과로 평가된다.

한전은 이러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BHI, HPS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암모니아 전소버너의 설계 고도화 및 발전소 현장 적용을 위한 공동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전력연구원은 성능시험과 연소 특성 분석을 주도하며, 민간 기업들은 이를 반영해 시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실증 적용 및 기대효과

이번 테스트베드에서 검증된 암모니아 전소버너는 오는 2025년 9월부터 삼척 순환유동충 발전소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기동용 버너 1기를 암모니아 전소버너로 교체하여 약 2개월간의 실증 운전을 통해 연소 안정성, 제어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부터

③ 암모니아 전소버너 시험 결과 (천연가스(NG)와 암모니아 화염 비교)



미래를 내다본 결단과 32년의 대장정 220V 승압 이야기

당시엔 반대와 민원을 무릅써야 했던 결정이 후대에 무릎을 치도록 칭송받는 경우가 있다. 한전의 승압사업이 바로 그런 경우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품질이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는 동인으로 한전의 220V 승압사업이 꼽힌다. 흑백 TV의 보급조차 미미한 실정이었던 1973년 정부와 한전이 과감한 결단으로 220V 승압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110V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 미국과 그리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Text 장은경 참고 「KEPCO in Seoul 더 큰 세상으로」



220V 승압사업 대역사의 시작

2005년 11월 한전은 1973년부터 32년에 걸쳐 추진해 온 220V 승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20V 승압사업은 가정용 전력의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높이는 프로젝트다. 1970년대 초 당시 남한의 가정용 전력은 110V가 표준전압이었다. 1973년부터 강원도 명주(현 강릉시로 통합)와 삼척지역 3,000호를 시범점으로 220V 승압사업이라는 대역사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승압사업이 필요하다는 해안에 따른 결정이었다. 총 투자비 1조 4천억 원에 연인원 75만 명이 투입된 당시로서는 엄청난 도전이었다. 규모가 큰 만큼 반대도 컸다. 이제 겨우 제한 송전을 해제할 만큼 아직도 전원개발에 투자해야 할 게 많아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고, 전압상승

에 따른 감전 등 안전 문제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110V 가전제품의 처리 방법도 문제였다.

이에 한전은 본격적으로 승압을 추진하기에 앞서 전자업체에 110V와 220V 겸용 가전기기의 생산과 보급을 요청하고 추가 비용을 보상키로 했다. 그리고 기기 개조, 교환, 강압기 지급 등 다양한 정책으로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또 안전 문제는 누전차단기의 개발과 적용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110V와 220V를 겸용케 하는 승압 방식의 탄력적 운영 등 시기적절하고 유연한 정책 전환을 통해 승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2005년 11월, 마침내 전국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 220V 승압이 완료됐다.



- ① 220V 승압완료 기념식
- ② 220V 승압 추진을 위한 이동봉사
- ③, ④ 220V 승압을 위한 인입선 정비 공사

110V → 220V 승압으로 전기 손실 75% 감축,
매년 1,700억 원 절감

‘승압’은 전기의 압력을 높인다는 의미이다. 동일한 수도관을 통해 물을 흘려보낼 때 수압이 높으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다. 전기도 마찬가지다. 전압을 높일수록 전기의 전달효율이 좋아진다. 220V 승압으로 설비증설 없이 2배의 전기 사용이 가능해졌다. 전기 손실도 75%를 줄임으로써 연간 40억kWh의 전력손실을 방지해 매년 1,700억 원의 전력설비 건설 및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송배전 손실률을 1973년 11.38%에서 2004년 세계 최고 수준인 4.46%로 낮췄다. 당시 선진국들의 송배전 손실률은 영국 8.7%, 미국 7.0%, 프랑스 6.8%, 일본 5.4% 수준이었다.

특히 승압으로 손실이 감소한 만큼 제조원가가 감소돼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는 물론, 국제적으로 이미 220V급으로 표준화돼 있는 가정용 전압을 채택함으로써 기자재 제조업체는 국제 표준전압으로 기기를 제작할 수 있어 품질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압변동률이 적은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고화질 TV 등 정밀가전기기의 사용을 가능케 했다. 이처럼 한전의 220V 승압사업은 난관에 굴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기울여 32년 만에 이룬 값진 성공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05년 승압사업을 완료하고도 20년이 흘렀다. AI 등 첨단기술의 발달과 기후변화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치솟는 가운데 50여 년 전 과감한 결정과 독심 있는 사업 추진으로 승압을 완료해 낸 한전의 스토리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 전기 손실도 감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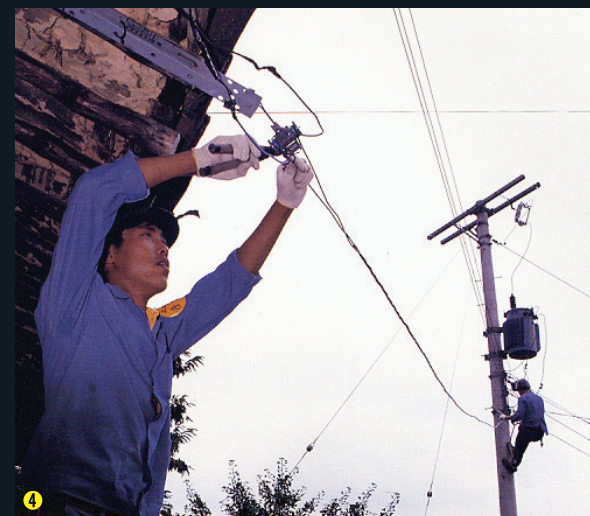
⚡ 75%

⊕ 연간 전력손실 방지

⚡ 40kWh

⊕ 전력설비 건설 및 유지비 절감 금액

⚡ \$ 1,700억



1973년

카메라 앞 색다른 소통으로 특별한 추억 만들다 구리지사

Text 장은경 Photo 황지현



‘모두의 취향’ 맞춘 이색 체육문화행사, 프로필사진 촬영

“다같이 구리구리~ 하고 외쳐볼까요? 가급적 사랑스럽게~” 사진기사의 ‘항마력’ 높은 주문에 사우들은 긴장과 스트레스로 굳었던 얼굴을 펴고 화사한 미소를 머금는다.

오늘은 구리지사 프로필사진 찍는 날. 2층 강당이 행복한 웃음소리로 들썩인다. 지사장부터 막내까지 한자리 모여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프로필사진 촬영이 한창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단체로 프로필사진을 찍고 있을까?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체육행사가 아니라 사우들에게 좀 더 특별한 의미도 있고,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행사를 추진해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김현수 구리지사는 설명한다. 직원들에게 특별한 행사를 고민하던 차에 박민철 노조위원장도 프로필 촬영을 제안하였고, 지사장과 직원들이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프로필사진 촬영 행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한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한 MZ 사우들은 ‘내 취향’이라며 좋아했고, 신입사원이나 기성직원들도 “이참에 사원증 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며 환영했다. 그리하여 이날 ‘모두의 취향’에 맞춘 프로필 촬영 행사가 축제 분위기로 진행됐다. 촬영 현장에서는 개인 프로필 촬영뿐만 아니라 팀별로 단체 촬영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팀워크를 다지고,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한 일처리, 진심 어린 서비스로
수금률 1위, 봉사도 1위

경기도 구리시 전체와 남양주시 일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리지사는 스마트한 업무처리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로 본부 자체 수금 강조기간동안 평가군에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1위를 했다.

성과는 사회공헌 부분에서도 빛났다. 2020년과 2021년도 모범봉사단, 2022년도 최우수봉사단, 2023년도 우수봉사단에 이어 올해는 작년 활동의 결과로 2024년도 최우수봉사단에 선정되면서 5년 연속 우수봉사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린·나눔·희망에너지를 실현하는 구리지사 봉사단은 취약계층에게 고효율제습기를 지원하고 전기내선 설비를 점검하는 등 업무와 연계된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메타버스플랫폼을 활용해 아동센터에서 에너지 전기안전교육 지원 등 참신한 봉사활동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직원 행복’ 강조하는 구리지사, 소통에 진심인 편

이렇게 구리지사는 소통에 진심이다. 항상 웃음 가득한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와 사가 함께 소통하며 노력한다. 최근 시행하고 있는 1인 1동호회 캠페인도 그 일환이다. 특히 테니스회는 창립 3년 차로 구력 1~3년 내외의 테린이들이 모여 즐겁게 성장하고 있는 동호회다. 매주 2회 선수 출신 외부 강사를 초청해 레슨도 진행하며 지사 내 정기 모임은 물론 인근 사업소, 다른 본부 직원들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남양주지사, 인천본부 직원들과 교류전을 펼치며 화합을 다졌다. 테니스동호회뿐 아니라 아홉 개의 동호회를 자유롭게 선택해 참여하며 동료들과 취미를 공유하고 소통한다. 구리지사가 인기가 높은 것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다는 지리적 특성뿐 아니라 지사 내의 질 높은 소통도 한몫했다고 사우들은 자평한다.

“구리지사(혹은 부서)를 한마디로? 행복과 웃음 가득한 사업소”라고 단박에 대답하는 최정원 고객지원부장. 구리지사는 “안전한 일터! 행복한 구리!”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과 직원들의 행복한 일상을 추구한다고 자랑을 덧붙인다.

거창한 선물보다 소소한 간식을 전 직원이 함께 나눠 먹고 싶다는 구리지사 김인섭 차장의 주문에 따라 ‘월간 KEPCO’가 준비한 건강 샌드위치와 오렌지주스를 나눠 먹으며 프로필 촬영 행사를 유쾌하게 마무리했다. 오늘 이들이 촬영한 프로필사진은 어쩌면 사원증에, 그리고 사우들의 마음에 오롯이 담겨 자랑스러운 깃발처럼 오래도록 나부낄 듯하다.



Thanks For Present

선물신청자

구리지사 고객지원부 김인섭 차장

또 하나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사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드리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프로필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선 사우들의 밝은 미소처럼 앞으로도 구리지사 사우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리지사는 소통에 진심이다. 항상 웃음 가득한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와 사가 함께 소통하며 노력한다.”



소리를 예술로 품은 특별한 공간 오디움

세계 곳곳에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은 많지만 '소리'를 주제로, 특히 오디오에 집중한 박물관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기존 박물관과는 전혀 다른 감각의 세계가 펼쳐진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빛과 바람, 향기까지 온 몸으로 느끼게 하는 특별한 공간, 바로 소리를 예술로 품은 '오디움(Audeum)'이다.

Text 최행자 사진제공 오디움



Audeum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 선정

서울 청계산 자락에 접어들면 독특한 건축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까이 다가가면 날렵하게 하늘로 뻗은 5층 높이의 건물을 수많은 알루미늄 파이프가 수직으로 감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5년 베르사유 건축상(Prix Versailles)*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 중 하나로 선정된 ‘오디움(Audeum)’이다. 길이 최대 40m에 이르는 2만여 개의 파이프를 외투처럼 걸쳐, 빛과 그림자가 숲속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 듯 섬세하고도 인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설계를 맡은 세계적인 건축가 쿠마 켄고(Kuma Kengo)는 이 공간이 독특한 질감과 함께 빛, 바람, 향기를 온전히 품으며, 청각을 통해 마음 깊이 치유받는 공간이 되길 원했다. 그런 바람을 담아 그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사용해 숲속에 스며드는 햇살의 따뜻한 이미지를 설계에 녹여냈다. 날씨와 시간, 계절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빛살의 무늬처럼 알루미늄 파이프들은 두께와 길이를 달리하며 자연의 리듬과 유기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이 독특한 조화가 오디움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입구부터 특별하다. 대부분의 박물관이 쉽게 드러나는 지상에 입구를 두는 반면, 이곳의 입구는 지하 2층에 있어 기다란 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야 한다. 두께 10cm가 넘는 견고한 돌로 마감된 벽면은 마치 숲속 계곡을 걷는 듯한 생생한 감각을 전하며, 관람객의 마음을 조용히 일깨운다.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베르사유 건축상은 2015년 창설 이후 매년 전 세계의 우수한 건축과 디자인을 선정해 온 권위 있는 상이다.

오디움 라운지

오디움 라운지는 공간의 기둥부터 천장까지 흰색 패브릭 소재로 감싸고 있어 화려하면서도 드라마틱한 공간을 연출한다.

오디오에 대한 모든 것

오디움은 오디오 전문 박물관답게 방대한 오디오 컬렉션을 자랑한다. 2층과 3층에는 총 7개의 전시실이 있다. 1전시실에 들어서면, 매킨토시, 마란츠, 제이비엘(JBL), 알텍-랜싱 등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친숙한 오디오 명기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어지는 2~7전시실에서는 웨스턴 일렉트릭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운 음향 장비들이 중심을 이룬다. 그중에서도 1920~1940년대 극장에서 울려 퍼지던 미국 웨스턴 일렉트릭의 음향 시스템은 단연 눈길을 끈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음색으로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꿈의 명기’로 남아 있어 이 기기들은 소리 그 자체로 시대의 기억을 되살린다. 극장용 음향 시스템의 또 다른 거장, 독일 클랑필름의 기기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으

니 놓치지 말 것. 1층에는 특별전시실과 엑시트 갤러리가 있다. 오디움 개관을 기념하며 사진작가 후카오 다이키가 박물관의 소장품을 자신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사진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엑시트 갤러리에서는 섬세한 기계장치로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는 다양한 종류의 뮤직박스가 전시되어 아날로그 소리의 매력을 전한다. 지하 2층 라운지에는 10만 장이 넘는 음반,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는 뮤직박스, 그리고 웨스턴 일렉트릭 ‘미러포닉(Mirrophonic)’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 관람을 마친 이들은 천천히 머물며, 깊은 여운 속에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식처 같은 공간이다.



일루미늄 파이프로 장식한 오디움의 파사드는 마치 도시의 숲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오디움 이용 안내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8길 6
운영시간 목~토요일 10:00~17:00
휴관 일~수요일
이용요금 무료
온라인 사전 예약 필수
문의 02-574-5175



바로가기



오디움 전시실
오디움 전시실은 19세기 축음기와 뮤직박스, 1920년대부터 1960년대의 빈티지 오디오 시스템 등 다양한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좋은 소리를 찾아가는 여정

오디움은 ‘좋은 소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관람객을 안내한다. 바로 전시 《정음 正音: 소리의 여정》을 통해서다. 이 전시는 도슨트와 함께하는 청음 투어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지난 100년 동안 발전해 온 음향기기를 연대기 순으로 만날 수 있다. 각 전시실마다 청음 시간이 있어 관람의 즐거움을 더한다. 클래식이나 해외 가곡, 팝송, 국내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5~7전시실은 주로 웨스턴 일렉트릭사의 사운드 시스템으로 채워져 있어, 각기 다른 형태의 혼 스피커를 통해 독특한 음향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소리에 갇힌 시간의 결을 따라가며, 듣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 감각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웨스턴 일렉트릭 미러포닉 스피커
웨스턴 일렉트릭의 기술을 집대성한 대형 극장용 스피커로, 도슨트 시간에는 의자에 앉아 직접 감상해 볼 수 있다.





안토니오 만치니, <필립스 부인>, 캔버스에 유채, 1909, 90.1x76.5cm

미술사 속을 걷는 산책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가 한국에 도착했다. 경주, 부산, 제주를 거쳐 서울에서 그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바로크 미술의 역동적인 형태부터 팝 아트의 대담한 색채까지,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는 서양 미술의 400년을 단숨에 건너는 여정이 담긴 전시다.

시대별 공간마다 조명과 색과 강도가 다르다. 그림 앞에는 당시 작가들의 삶을 요약한 설명도 놓여있다. 전시는 네덜란드 회화의 황금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미술 그리고 오늘날까지 남아공의 예술 현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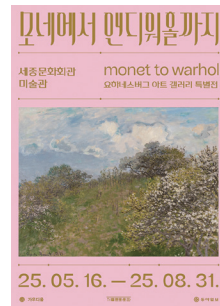
가장 먼저 전시된 작품은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의 설립자인 필립스 부부의 초상화이다. <리오넬 필립스>의 초상화를 그린 지오반니 볼디니는 역동적인 인체를 빠른 붓질로 유려하게 그려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토니오 만치니의 <필립스 부인> 초상화는 거침없는 붓 터치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작품의 시작점인 필립스 부부를 통해 전시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7월의 계절감을 더한 시원한 예술 처방전

무더운 여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7월의 열기는 걸음을 무겁게 하고 생각마저 흐려지게 만든다. 시원한 공기와 함께 여름의 나른함을 날려줄 처방전이 필요하다. 다채로운 색채가 무더위를 식혀줄 특별한 전시를 소개한다.

Text 최설화 Photo 황지현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기간 5월 16일~8월 31일
관람 10:00~19:00(입장 마감 18:00)
이용료 성인 20,000원
문의 02-399-1000

다니엘 세헤르스, <꽃병에 꽂힌 꽃>, 패넬에 유채, 1661 이전, 51x39.2cm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작품은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니는 것

모네의 초기작인 <봄>은 전시장 한가운데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자연의 인상을 담은 데 집중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담기보다는 보는 순간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한다.

전시 중 유일하게 입체적 감상을 할 수 있는 오귀스트 로댕의 <이브>도 시선을 끈다. 무릎을 반쯤 굽힌 채 양팔로 상체를 감쌌다. 특히 조각 뒤 파란색 배경과 함께 빛에 따라 생김 그림자가 고요함을 느끼게 한다.

자연을 담은 따뜻함과는 다른 결로 20세기로 넘어오면 대중문화와 고전 미술의 충돌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앤디 워홀의 <요셉 보이스>는 실크 스크린 기법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찍어내면서 이미지가 대량 생산되고 있는 현대의 불안을 담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은 남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주요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윌리엄 켄트리지의 <물에 잠긴 소호>는 거친 목탄과 간결한 파란색 파스텔로 그려졌다. 한 남성의 가슴에서 새어 나온 파란 물줄기는 바닥으로 흘러 그를 어디론가 잠식시키고 있는 듯하다.

이번 전시는 단지 고전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는 유럽 미술을 다루면서도, 출발점이 아프리카라는 점에서 특별한 무게를 더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서울까지. 공간을 넘어 시간을 여행하는 기분을 준다. 여름날의 미술 산책으로 예술의 국경을 넘어보자.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서양 미술의 진화 과정을

따라가는 시간 여행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

대담하고 넘치는 에너지, 화려한 색의 향연

《캐서린 번하드 展》



©Katherine Bernhardt,
Happiness, 2018, Acrylic and spray paint on canvas, 182.9x152.4cm

익숙한 것들의 낯선 변신 일상과 예술의 경계 허물기

어릴 때 본 만화, 매일 마시는 커피, 오늘 신은 양말, 무심코 쳐다본 쓰레기통. 머릿속 어딘가에 뒤섞여 있는 익숙한 물건들이 벽에 걸려있다. 대담한 붓질과 강렬한 색채. 낙서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자유로운 에너지를 발산하며 유머를 더한다. 《캐서린 번하드 展》의 이야기다. 미국 화가인 캐서린 번하드는 무의식 저장소에서 꺼내 온 사물에 독창적인 감각을 불어넣는 작가다. 특히 심슨, 포켓몬, 핑크 팬더 등 다양한 캐릭터와 일상적 물건들을 거칠게 담아낸다. 빈틈없이 그려진 캔버스는 작품을 보는 내내 시선을 압도한다.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게 한다. 전시 초입에는 작가의 초기 대표작인 <슈퍼모델> 시리즈가 걸려있다. 패션 매거진에서 튀어나온 듯한 여성들이 형체만 남은 윤곽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번진 화장, 어색한 자세 등 어딘가 불편한 이질감 사이에서 붉은 입술만이 강렬하게 시선을 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캐서린 번하드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여성 이미지, 패션계의 비현실성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상업적 아이콘의 재탄생

맥도날드 로고, 나이키 운동화 등 일상에서 소비되는 상징적인 아이템들을 캔버스 위에 등장시킨다. 사회적 의미나 상업적 가치를 평가하진 않고, 브랜드가 가진 색을 이용해 캐서린만의 예술을 재창조할 뿐이다. 가필드, 피카츄, 메타몽 등 흔히 알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을 실험적인 색감과 형태로 재해석해 자유롭고 도발적인 느낌도 준다. 특히 바트 심슨의 발칙한 조형물은 관람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캐서린 번하드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핑크 팬더> 시리즈의 신작도 최초 공개한다. 격자무늬를 배경으로 핑크 팬더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은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팬더의 몽환적 분위기와 색감의 혼돈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캐서린 번하드의 작품은 머릿속 생각 조각들이 캔버스 위에서 뱅뱅 떠다니는 것처럼 제멋대로다. 그 배치에는 규칙도, 논리도 없다. 캐서린 번하드의 작품들은 가장 밝고 강렬한 색을 사용해 기발한 조합과 충동을 일으킨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이미지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딘가 어긋나 있지만, 그것을 봉합해 놓은 듯하다. 특히 전시장 바닥에서 캐서린 번하드의 작업 방식을 엿볼 수 있다. 그녀는 캔버스를 바닥에 눕혀놓고, 스프레이 페인트와 물감 등을 총동원해서 빠르게 그린다. 그래서인지 작품뿐 아니라 바닥에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다. 놀라움 만큼 리듬감이 있어 보인다. 정확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고, 그래서 더 유쾌하다.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기간 6월 6일~9월 28일
관람 10:00~19:00(입장 마감 18:00)
이용료 성인 22,000원
문의 1668-1352

©Katherine Bernhardt,
Munch, 2024, Acrylic and spray paint on canvas, 304.8x243.8cm

©UNC Gallery



©UNC Gallery

몰입과 기다림의 재발견, 클래식힙

리사이틀 티켓 오픈 소식이 뜨자,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는 한순간에 수천 명이 몰렸다. 예매 시작 신호와 동시에 마우스 클릭 소리가 쏟아졌고, 몇 초 만에 모든 좌석은 매진됐다. 공연 당일 공연장에서는 예매에 실패한 팬들이 현장 취소표를 기다리며 줄을 섰고, 공연장 입구의 포토월은 사진을 찍으려는 관객들로 북적였다. K팝 스타의 콘서트장 광경이 아니다. 클래식 공연장에서 20대 관객을 찾아 보기 힘들었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클래식 공연장 역시 이제는 젊은 세대의 열정으로 넘쳐나는 공간이 되었다. 바야흐로 '클래식힙(Classic Hip)'이다.

Text 이혜원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요즘 힙하다는 클래식

힙(hip)이라는 단어는 원래 '최신의', '유행에 민감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신 트렌드를 아는 사람, 혹은 세상 물정에 밝은 이를 지칭할 때 쓰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즘 젊은 세대가 '힙하다'라고 부르는 것들을 보면 남과는 다른 개성, 신선함, 그리고 자기만의 감각을 찾는 태도와 연관된 일들이 많다. '힙'이라는 것이 더 넓고 깊게 확장된 셈이다. 누구나 따라 하는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잊혀졌던 것, 혹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일들도 모두 '힙'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임윤찬, 조성진 같은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는 클래식의 권위와 난해함을 넘어, 감각적이고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도구로 읽힌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공간이 아니라, 느낌과 집중을 통해 내면을 채우는 경험의 장이다. 빠르고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꺼두고 오직 음악에만 집중해야 하는 곳. 박수조차 정해진 때에만 칠 수 있는 엄격한 규칙이 존재하는 곳. 언뜻 답답해 보이는 이런 제약들이 오히려 몰입과 여유를 선사한다. 클래식이 힙해졌다는 건, 이제 클래식이 소수의 교양이나 특별한 취향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스며들었다는 뜻이다.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바흐와 쇼팽이 흘러나온다. 임윤찬의 연주 영상이 SNS를 타고 퍼지고, 조성진의 쇼팽 콩쿠르 우승 소식은 아이돌의 글로벌 시상식 수상처럼 화제가 된다.

최근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30세 이하의 젊은 스타들이 세계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다. 루이스 필립슨(Louis Philippson)은 유튜브와 SNS에서 75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모은 독일의 피아니스트이다. 그는 브이로그와 피아노 연주 영상을 통해 클래식이 어렵지 않고,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음악임을 보여주고 있다. 덕분에 그의 첫 솔로 투어는 독일 주요 도시에서 매진 사례를 기록했다.

아날로그 감성, 텍스트힙의 부상

이런 현상은 비단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출판계에서는 '텍스트힙(Text Hip)'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한때는 지루하고 진지한 취미로 여겨졌던 독서가, 이제는 텍스트의 고유한 매력이 재발견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텍스트힙 열풍과 함께 활성화된 '독서클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SNS에 독서 인증사진을 올리고, 좋은 문장을 필사해 공유하는 등 독서를 통해 자신의 감성과 개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독서클럽은 책을 매개로 한 깊은 커뮤니케이션과 경험 공유의 장이 된다. 실제로 트레바리, 민음사 북클럽 등 유명 독서 모임은 '유료 회원제'와 '독후감 작성' 등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면서도, 책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인다는 점에서 신뢰와 공감을 얻고 있다. 이 모임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시각을 배우며,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힙독클럽'과 같은 공공 독서모임도 텍스트힙 트렌드에 발맞춰 등장했다. 이들은 독서 진도와 필사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공유하며 등급과 마일리지를 부여받는 등 독서를 게임화하고,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독서문화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힙하게 변모시키고 있다.

연예인들의 공향 패션 역시 결이 달라졌다. 한때는 화려한 의상과 고가의 액세서리로 무장했던 연예인들이 이제는 책을 필수 소품으로 들고 다닌다. 아이돌 멤버가 들고 있던 철학서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배우가 읽었다는 시집이 품절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책이 명품 가방만큼이나 강력한 패션 아이템이 된 것이다. 책을 든 모습이 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든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서점 브이로그를 찍고, 예쁜 북커버와 독서링을 자랑하는 것이 새로운 플렉스가 되었다.

유명인들의 텍스트힙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배우 박정민은 아예 출판사를 설립해 화제를 모았다. "좋은 이야기를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의 말처럼, 연기자가 직접 책을 만들고 유통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종이책 특유의 질감과 책장 넘기는 소리, 새 책의 냄새까지도 하나의 감각적 경험으로 소비되는 시대. 디지털 텍스트로는 느낄 수 없는 물성에 대한 갈망이 텍스트힙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현상의 밑바닥에는, 디지털에 둘러싸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진짜'를 갈망한다는 신호가 있다. 임윤찬의 연주를 들던 한 관객이 "에너지가 필요할 때, 힘을 북돋워 주는 기운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결국 클래식이나 텍스트가 '힙'과 합쳐진 이유도, 우리가 진짜 경험, 진짜 감동, 진짜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감각을 찾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변주되고 있는 것이다.



내 손으로 제작하는 힙한 세계

‘라이트 매뉴얼 워크’가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 즉 뜨개질, 도배, 목공, 가죽공예 같은 활동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라이프스타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현상을 가리킨다. 손가락으로 실을 감고, 나무를 깎고, 가죽을 바느질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촉감과 소리, 그리고 결과물이 눈에 보인다는 효능감은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매력이다. 손으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과 의미를 찾는다.

앞서 힙의 본질이란 시대를 능동적으로 즐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재구성하는 태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해 보면 온라인에서 모여 1박 2일 동안 뜨개질만 하는 캠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며 뜨개질을 하는 상영회, 혹은 직접 만든 목공 소품이나 가죽 지갑을 SNS에 공유하는 일은 모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드러내는 자기 표현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방식이다.

다양한 ‘힙’ 현상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다. 클래식힙, 텍스트힙, 그리고 손으로 만드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은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한 일종의 균형추다. 시가 인간의 창의성마저 모방하고, 가상현실이 현실을 대체하려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직접 들을 수 있고,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갈망한다. 그것은 3차원 존재인 우리가 본능적으로 발산하는 진정성에 대한 신호다.

앞으로도 ‘힙’은 계속 진화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을 찾아가는 능동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빠름과 느림, 디지털과 아날로그, 가상과 실제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자운동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임윤찬의 피아노 선율이 수만 명의 가슴을 울리고, 종이책의 촉감이 위로가 되며, 손으로 만든 작품이 자부심이 되는 이유. 그것은 이 시대가 잃어버린,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 쉬는 인간다움의 본질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이다. 클래식힙은 그렇게 우리 시대의 새로운 문화 코드로, 삶의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힙’은 계속 진화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을 찾아가는 능동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빠름과 느림, 디지털과 아날로그, 가상과 실제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자운동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연결되지 않을 자유, 옛날 전자제품

최근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목적에 충실한 전자제품들이 다시 주목받는 현상 역시 클래식힙, 텍스트힙의 맥락에서 보면 의미심장하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느림과 몰입을 경험하듯, 책을 읽으며 사색에 잠기듯, 외부와 연결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순수한 경험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필름 카메라를 손에 쥐고 셔터를 누르면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과 함께 ‘딸깍’ 소리가 들린다. 필름이 몇 장 남았는지, 빛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신경 쓰며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사진을 찍지만, 그 사진을 보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다. 현상소에 맡겼던 필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설렘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수백 장의 파일로는 느낄 수 없는 고유한 감동이다. 전자사전의 물리적 버튼을 두드리며 단어를 찾아내는 과정, 그리고 MP3 플레이어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 파일을 하나하나 옮겨 담는 일은, 일종의 성취감마저 선사한다.

이 모든 순간은 디지털 세대에게 ‘기다림’과 ‘집중’이라는 낯선 경험을 선물한다. 스마트폰의 무한 스크롤과 끊임없는 알림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도구가 된다. 젊은 세대는 이 과정에서 일상의 진정성을 찾고, 스스로의 감각과 취향을 돌아본다. 인터넷이 없는 기기에서 느끼는 자유, 그리고 목적에 충실한 사용의 즐거움은,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진짜 경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한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옛 기기를 찾는 이유는 단순한 향수나 과거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손끝에서 느껴지는 물리적 만족감과 결과를 기다리는 설렘을 향유하는 셈이다.

클래식이 즐겨워지는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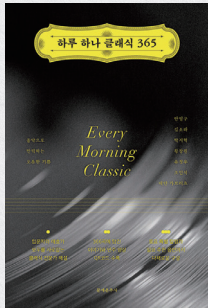
〈두근두근 클래식〉

저자 허제
출판사 좋은땅
클래식 음악과 명연주가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는 음악 수필집이다.



〈하루 하나 클래식 365〉

저자 안일구, 김소라, 박지혁, 황장원, 유정우, 조민석, 대안 가브리츠
출판사 문예춘추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새로운 주제의 클래식 음악을 소개한다. 불후의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매일 한 곡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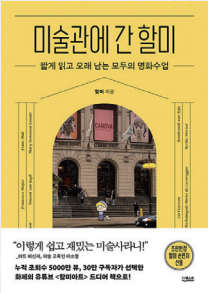
〈아무튼 클래식〉

저자 김호경
출판사 코난북스
매력적이면서도 철옹성같이 완고하고 한 클래식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글로 풀어낸 음악 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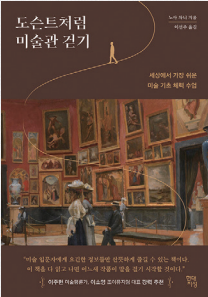
〈미술관에 간 할머니〉

저자 할미
출판사 더퀘스트
르네상스부터 현대미술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미술사 지식을 그림사랑꾼 할머니의 따뜻하고 웅송깊은 시선으로 풀어낸 미술 교양서다.



〈도슨트처럼 미술관 걷기〉

저자 노아 차니
출판사 현대지성
미술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복잡한 미술 이론 지식 없이도 작품을 쉽게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미술 교양 입문서다.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저자 양정무
출판사 사회평론
누구나 명작이라 칭송하는 작품들을 살펴보면 세력의 풍파를 거치며 명작이 되어가는 아름다움을 읽는 방법을 소개한다.



클래식을 잘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

클래식 좀 들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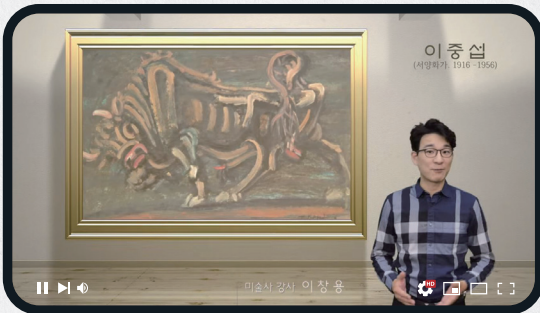
@ClassicZomListen



클래식을 다루는 채널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미있는 썸네일과 클래식 소개로 클래식에 대한 편견을 깬다.

아트레킹 - 이창용 도슨트의 예술 산책

@ARTRACKING



이창용 도슨트가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설명해 주는 채널이다.

자랑질 코너

무엇이든 자랑하세요!

① 빅토리아 폭포의 노을

지구 반대편의 풍경 속으로 번지점프!

나미비아~짐바브웨 아프리카 남부 종단기

김덕인 홍보처 홍보기획부 차장

평생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던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이번 여정은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작해 나미비아를 지나 짐바브웨까지 아프리카 남부를 종단했다.



② 빅토리아 폭포

자유와 희망의 케이프타운

첫 여행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15년 만에 다시 만난 희망봉은 그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15년 전 사진을 스마트폰에 고이 담아 갔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반가웠다. 그럼에도 케이프타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단연 보캅(Bo-Kaap)마을이었다. 인종차별 정책이 없어지고 자유엔 색이 무관하다는 의미로 만들어졌다는 마을이 담고 있는 의미 덕분에 형형색색의 집들이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③ 케이프타운

태고의 지구 여행지, 나미비아

이어 도착한 나미비아는 태고의 지구를 여행하는 시간이었다. 소서스블레이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다. 해가 뜨며 붉게 물들어가는 사구를 등반하는 것은 수천만 년 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소서스블레이에는 여러 뷰 포인트들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데드블레이이다. 천년을 살아온 고사목들이 사막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앞에 보이는 이 풍경이 현실인가 싶었다. 내가 도착하기 이틀 전에 우박이 내린 덕에 황폐한 사막에 노란 꽃이 피어있는 걸 종종 볼 수 있었던 점도 꽤나 신기했다.



④ 나미비아

버킷리스트의 완결판, 빅토리아 폭포

마지막 목적지는 나의 버킷리스트인 '세계 3대 폭포 가보기'를 실현하게 해준 짐바브웨 빅토리아 폭포다. 빅토리아 폭포에서의 첫 일정은 번지점프였다. 처음 빅토리아 폭포 여행을 고민할 때부터 번지점프는 무조건 해야지 마음먹었는데 막상 뛰려고 보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실랑이하다 뛰지 말라며 근데 환불은 못 해준다는 가이드들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기하게도 난간을 꼭 잡았던 손이 절로 떨어지고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대략 100m 번지점프를 성공한 후론 무엇인지 모를 '어깨뻥'에 뛰어내린 다리만 보면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 그 후 남은 빅토리아 폭포에서의 일정은 마냥 평화로웠다. 특히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봤던 일출이 기억에 남는다. 자연

을 보러 다니는 여행을 선호하는 만큼 일출·일몰을 꼭 보는데 물안개 사이로 뜨는 동그란 해가 괜히 몽글하기까지 했다. 빅토리아 폭포의 일출을 마지막으로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주는 단단함

지금 생각해 보니 지난 11일간의 여정은 단순한 심이 아닌 아주 조금의 깨달음의 시간이기도 했다. 화려하지 않고, 빠르게 발전하지 않아도 묵묵히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했다. 짧은 시간 동안 낯설지만 신비롭기까지 했던 풍경 속에서 마주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주는 단단함'이었다.



⑤ 빅토리아 폭포

자랑질 코너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취향, 재능, 취미, 자녀 등등 무엇이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코너이니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배전운영처·송변전운영처**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소와 선관위에 대해 단 한 건의 정전 사고도 없이 안정적 전력공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이는 지난 4월 25일부터 4주간 걸친 사전 점검과 정비, 4중 전원 구성, 자동전환 비상등 지원, 전력 확보 종합상황실과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국가 주요 행사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배전운영처 #송변전운영처 #제21대_대통령선거 #안정적_전력공급 #점검_또_점검 #숨은_노력들

**해외사업운영처**











인도네시아 자바 9&10 발전소가 지난 5월 성공적으로 준공되며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전이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민자발전(IPP) 시장에 진출한 기념비적인 사례이자, 인도네시아 IPP 역사상 최초로 '예산(On Budget), 일정 내(On Time)' 준공에 성공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해외사업운영처 #인도네시아 #자바_9&10_발전소 #On_Budget #On_Time #준공식

**목포지사·목포전력지사**











우리 지사는 목포 영흥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전력사업 이해증진 청소년 에너지캠프」를 시행했다. 영업, 송·배전 업무에 대해 배우고 영업창구, 남악변전소 등을 견학했다. 전력사업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목포지사 #목포전력지사 #영흥중학교 #진로체험 #현장견학 #전력산업의_미래 #예비_한전인

**달성전력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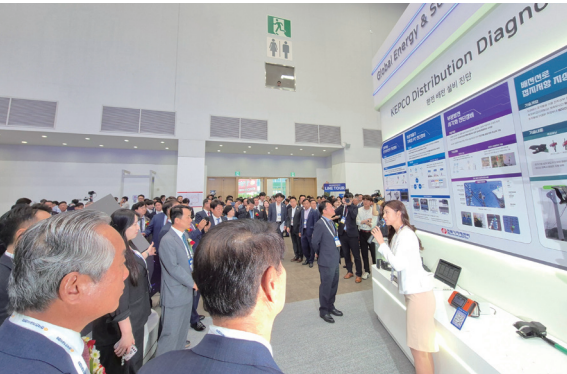


어두운 맨홀을 점검할 때 작업자는 헤드랜턴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빛·바람 하나로' 시스템은 조명·환기 일체형 장치로 우리 지사 직원들과 함께 직접 시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작업 효율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달성전력지사 #빛·바람_하나로 #어두운_맨홀 #부딪힘_주의 #작업효율_향상 #안전사고_예방

**안전처**











안전처, 홍보처, 전력기자재센터 협업으로 「2025 전기산업 엑스포」에서 AI·IoT 기술 기반의 스마트 안전 및 배전 진단 신기술 등을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AI 기반 기술혁신과 첨단 IoT를 바탕으로 안전 문화를 선도하고, 작업 현장의 효율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대거 선보였다.

#안전처 #홍보처 #전력기자재센터 #2025_전기산업_엑스포 #AI #IoT #스마트_안전 #배전_진단_신기술

**HVDC건설본부**











우리 본부는 빅스통 배구단과 함께 1일 배구교실을 개최하였다. 정선군 유소년 등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빅스통 선수, 김요한 선수와 함께 배구도 배우고, 사인도 받고, 기념촬영도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HVDC건설본부 #정선군 #빅스통_배구단 #김요한_선수 #배구교실 #강력한_스파이크 #친하게_지내요

**강릉지사**











우리 지사는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교육을 받고 실전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밀폐공간의 위험 요인, 작업 전 절차 등을 배우고, 골든 타임 내 구조 절차, 비상연락 체계 운영과 같은 매뉴얼을 몸으로 체득하는 훈련을 받았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니 현장에서의 대응력이 더 높아질 수 있었다.

#강릉지사 #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구조훈련 #골든타임 #지나기_전에 #비상연락 #안전제일

**인천본부**











우리 본부는 인천 소래습지 생태공원에서 염생식물 식재 봉사활동으로 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한전, 인천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포스코이앤씨, 월드비전의 임직원 100여 명이 함께했다. 모두 함께 지역 생태계 보전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인천본부 #블루카본 #염생식물 #식재 #봉사활동 #소래습지_생태공원 #ESG #환경보호

<KEPCO> N행시

7월호 테마 키워드로 나만의 N행시를
지어 보세요.
참여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월의 주제 ‘기대’

N행시 예시
기 적을 바라는 마음에
대 답 없는 밤하늘을 바라본다.

참여 방법 QR코드 스캔 후 답변 제출
접수 마감 7월 20일(일)까지
이벤트 상품 신세계 상품권 2만원권
선물발송일 8월 10일경



이벤트 참여하기

6월호 N행시 당첨자

이*운(6775)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가슴 뛰게 하는가.
해와 달은 또다시 우리를 비추고 있으니
력(역)사가 되리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김*규(4879)
무엇이든
해낼 거예요.
력(역)시 당신이니까!

김*민(9478)
무더위에도 땀 흘리며
해가 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력(역)사속에 기억될 전력산업의 역군입니다.

이*진(8421)
무심한 밤, 도시를 밝히는 불빛들
해가 진 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
력(역)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지!

이*혁(4640)
무지개가 뜨려면
해가 뜨기 전에 비가 내려야 하듯
력(역)경을 이겨낸 뒤편 밝은 미래가 온다.

한*섭(8910)
무려 127년의 시간동안
해가 진 후 어둠을 밝혀 온
력(역)사적인 한국전력공사

한*기(9032)
무너지지 않으려 꺾 참았던 밤들
해담은 없었지만, 매일을 견뎌지.
력(역)경 끝에서 피어난 네가, 참 아름답다.

고*성(9101)
무대 뒤에서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 있어.
력(역)활이 다를 뿐, 모두가 주인공이야.

백*섭(2758)
무슨 일이 있어도,
해피엔딩을 만들 수 있는 건,
력(역)시 당신의 긍정적인 힘!

송*우(5885)
무거운 마음은 잠시 내려두고
해맑은 웃음으로 하루를 채우면
력(역)시나 별거 아닌 일일 거예요.

KEPCO

2025
July
vol.625

통권 625호 2025년 7월호(월간)
등록번호 나주 마00003
발행일 2025년 7월 1일
발행인 김동철
편집인 백수현

편집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15, 3125, 3128
주소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획·디자인 ㈜이팝
인쇄 ㈜대유기획인쇄
창간일 1961년 8월 31일

직원참여형 이모티콘 공모전 결과 발표



여러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모여 귀엽고 재치있는 KEPCO 이모티콘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직원참여형 이모티콘 공모전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을 발표합니다. 선정된 이모티콘은
사내 메신저와 카카오톡으로 배포될 예정이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선정결과

가보자고~



최우수

수상자: 김*규
캐릭터: 통합Kepco콘
소속: 경북본부 봉화지사

우수

수상자: 신*아
캐릭터: 해피의 엉뚱한 한전생활!
소속: 광주전남본부직할



우수

수상자: 조*윤
캐릭터: 백구 아니고 전구
소속: 경남본부 함안의령지사



장려

수상자: 양*규
캐릭터: 사우남녀
소속: 경영지원처 사옥건설실



장려

수상자: 조*영
캐릭터: 퇴근조아 낭대리
소속: 대구본부직할



장려

수상자: 김*영
캐릭터: 직장인 감자씨
소속: 전력시장처 계약거래부



활용방안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한 직원참여형 이모티콘 우수작 배포

고객만족도 제고

• 고객만족도 조사 시 이모티콘 제공을 통한 정서적 완충

청렴문화 확산

• 청렴 프로포즈 등 청렴실천 우수활동자 대상 이모티콘 지급

사내소통 활성화

• 사내 포상 및 성과발표 등 우수직원 이모티콘 리워드 제공

향후계획

우수작 기반 사내 메신저 적용

파워톡(즉시), 커뮤니케이터(6월)

카카오톡 내 KEPCO 이모티콘 제작

수요조사(6월), 쿠폰제작 및 배포(9월)

